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입장문

## ‘이재명 측’ 뒤에 숨어 없는 사건 만들어내는 검찰, 지겹지도 않습니까?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이라는 자극적 단어로  
곰탕 우려내듯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한 악의적 의도로,  
검찰이 이미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안중에도 없음을 또 한 번 입증한 것입니다.

서울신문은 지난해 12월 30일 그간 천화동인 이재명 대표 측 지분에 대해  
“들은 적 없다”고 증언했던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영학이 제출한 하드디스크에서  
‘천화동인 지분표’를 확보했다는 내용까지 덧붙인 검찰 발 기사입니다.

이어 2023년 1월 2일 서울신문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는 남욱 변호사가 명의신탁을 한 것’이란 취지로  
작성된 약정서 문건을 확보했고,  
“이 문건이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수익 약정과 관련 있다고 보고 조사 중”  
이라고 보도합니다.

결국 핵심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입니다.

현재 검찰은 천화동인1호를 유동규, 정진상, 김용 3인 공동소유로 몰아가며 ‘428억 원 약정설’, ‘이재명 대표 측 지분설’을 기정사실화해 언론에 마구 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이 지난해까지 핵심 증거로 삼았던 ‘정영학 녹취록’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동규 단 한 명임을 명백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는 유동규에게 “천화동인1이 남들은 다 네 걸로 알아.

너라는 지칭은 안 하지만, 내 게 아니라는 걸 알아” 라고 말합니다.

유동규는 “비밀이 지켜졌어야죠. 누가 이야기 안 했으면

애들(화천대유 직원)이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답합니다.

유동규가 소문의 출처를 따져 묻자

김만배는 남욱이 퍼트렸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유동규가 화를 내자 김만배는 “아무도 몰라, 너라는 거” 라며 달랠니다.

2021년 2월 4일 정영학 녹취록에는

남욱이 실소유주 소송을 하면

김만배가 합의금 명목으로 700억을 남욱에게 전달하고, 남

욱이 유동규에게 이 돈을 전달하는 것으로 입을 맞추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는 남욱이 중간에서 가로채지 않을지 걱정합니다.

이 돈이 정진상, 김용에게 전달하는  
뇌물성 자금이라면 벌어진 수 있는 일일까요?

이처럼 녹취록의 어딜 살펴봐도

김용, 정진상이라는 이름은 등장조차 하지 않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천화동인의 소유자는 유동규 한 명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뒤집혔다는 정영학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사 받게 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나눈 대화의 녹취록,

수사를 받고 나서 갑자기 뒤집힌 진술 둘 중 어떤 것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또 재판 과정에서 3인 공동소유를 부정하던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갑자기 진술을 뒤집었다면

상식적으로 왜 진술이 뒤바뀌었는지부터 살펴보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검찰에 묻습니다.

검찰이 자꾸 언론에 흘리는 ‘이재명 대표 측’ 은 대체 누구입니까?

유동규도 ‘이재명 대표 측’ 입니까?

아니면 검찰이 확보했다는 ‘천화동인 지분표’ ,

약정서에 정영학 녹취록엔 없던 김용, 정진상 이름이나

그 돈을 이재명 대표가 착복했다는 증거라도 나오니까?

만약 그런 물증이 있다면 떳떳하게 공개하십시오.

언론 뒤에 숨어서 교묘한 말장난이나 하라고

국민이 검찰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01월 04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첨부파일] 정영학 녹취록 4건

유 동 규 아니 그러니까 비밀이 지켜졌어야죠.

김 만 배 비밀이 어떻게... 안돼.

유 동 규 그리고.. 아니요. 비밀이 지켜지면서 심부름을 시켰어야죠.  
그러면 내용을 모르고 정리가 될 텐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퍼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건 결국 두고두고도 이거는 후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이 너무 지금 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행동이 좀 가벼웠다.  
그리고 얼마 벌었네, 얼마 벌었네 돌아가면서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건 참 애석한 일이다.

김 만 배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얘기해서 직원들이 많이 안거지.  
권화동인1이 남들은 다 니절로 알아.  
너라는 지칭은 안하지만, 내게 아니라는 걸 알아. (...)

유 동 규 ←

정 영 학 그거 (...)

유 동 규 그걸 누가 이야기 안했으면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누군가 이야기했으니까 알겠죠.

김 만 배 아니, 회사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권화동인1 소송할거다 뭐할거다 이런 얘기했겠지.

유 동 규 그런데 그게 내꺼라는 걸 왜..

김 만 배 아니, 너라는 얘기는..

유 동 규 남욕이.. 남욕이 끼.. 아닌, 남욕이 지꺼라고 그랬으면 지꺼라고 이야기 해야지, 남욕이가 유동규 끼니까 뺏어와야겠다. 그런 말은 안했을 거 아니에요?

김 만 배 그런 얘기는 안했는데, 그거는 형이 오바한 거고, 내게 아니라는 걸 알지.

유 동 규 예. 그러니까 팩트를 정확하게 해야지.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가 아, 이거는 유동규 똥으로 해놓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다음에야.

김 만 배 아무도 몰라. 너라는 거.

유 동 규 아무도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애초부터 이것을, 내가 그랬잖아요.  
왜냐면 밑에 있는 애들, 하다못해 김씨니, 유씨니, 다른 작은 유씨니, 김씨니. 힘 밖으로 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심부름만 시켜가지고 일단 하게 만들어놓고.

김 만 배 아, 여기도 그래, 동규야.

유 동 규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사공들이 많아진 거는, 그런데 왜냐면 사고 때문에 일막음에 대한 사공들이 많아졌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할 것 같아요.

정영학 예.. 그러면 그런 거는 소송이 좀 오래 걸립니까?

김만배 아니, 걸릴 게 어디 있어. 조정하면 되지. 조정하면 돼. 응?

정영학 네.

김만배 남육이가 1,000억 소송을 걸면 한 600 얼마로 조정하면 돼.

정영학 네네.

김만배 그러면 (중요)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남육이가 주겠니? 합법적으로 본인 것 됐는데. → \*16년 10 29일  
 \* 2021-4-22일  
 \* 대법원 판결 (17년)  
 \* 남육자가 지는  
 \* 것임

정영학 소송해서 찾아가면 그게 남육이 돈이죠.

김만배 응.

정영학 남육이가 어떻게 할지는 뭐 그 불만의 관계야 뭐 모르는 거고요.

김만배 응, 그렇지. 넌 빠져있어. 법률적으로. 응? 넌 나중에도 해야 돼.

정영학 저야 뭐..

김만배 너는 세부적인 거랑 금액적인 거 대신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방법은 맞다. 응?

정영학 네. 세금, 지난번에 세금적인 것 설명을 드렸고.

김만배 응, 그렇게 해. 그거 이상 없다.  
그거 뭐 어때. 응? 공무원에게 돈 거래는 너는 모르는 걸로 하라고.  
내가 볼 때 유동규는 거기 죽어.

김만배 잠깐. → 유동규 ← 남육  
 (전화통화) 어, 중요야. 응응. 하기도 했어? 응. 응. 돈 문제 가지고 얘기하기 싫은 놈이 왜 그랬어. 응. 뭘 넘겨. 내가? 내가 하자는 대로 한 거지. 무슨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아, 남육 육이한테 통해서 받으면 된다고 지난번에 그랬으니까 형이 그.. 아, 거번에도 그랬잖아. 한달 전엔. 아니, 무슨 말을 해? 니가 그랬잖아. 응응. 응응. 어떻게? 얘기해봐. 그러면 나한테 일제 그것이 잘됐다 못됐다 이런 얘기하면 안돼. 못받아도 그만, 잘 받아도 그만. 법률적으로도,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나한테 소송을 넣으라고 그래. 아, 내가 전화 하면 받을게 내가. 전화 오면 그렇게 한다니까, 절차를. 그것 뭐 그냥 그냥 쉽게 되는 거지. 그래 그래, 알았어. 응- 응-  
법률적으로 되면 그렇게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는 그냥 하청업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정영학 네.

김만배 지금까지 쓴 비용을 제하고 (본인이) 600억만 가져간대. 응?  
그래서 내가 그랬어. '700억 줄게, 700억 주는 데서, 너희들이 모르는 돈이 나갔어' 무슨 말인지 알지?

정영학 네.

김만배 그리고 또 나가게 될 수도 있어. 그거는 영수 처리도 못하고 세금 처리도 못하면 응? 우리 한 400억 정도까지는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600억만 가져가겠대.  
'아니 형씨 700억 줄게, 700억 주는대, 거기서 남육이 거를 공식적으로  
60억. 응? 그리고 (...) 5억 준 거에 대해서 내가 회사에서 빌려간 것  
까지 다바로 (...) 10억으로 쳐서, 그래서 70억 공제하고 630억을 남육이  
가 소송을 넣으라고 그래. 그러면 소송에서 조정하는 걸로'